

# 아우구스티누스의 감각인식에서 바라본 행복의 의미<sup>1)</sup>

김은우<sup>2)</sup>

## I. 서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관조하는 것이 행복이고,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신을 관조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전제는 신과 행복을 '영원함'(sempiternum)이라는 관계에 놓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영원함은 가변적이지 않고 영구한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영원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본다.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신을 관조'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신을 관조하는 단계는 인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 인식과정은 외적 감각에서 내적 감각으로 이동이다. 외적인 것은 신체의 감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면, 내적인 것은 신체 내부에 위치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저서 중에서 전기에 속하는 『행복론』에서 외적 감각을 내적 감각보다 열등하게 표현한다. 인식의 위계질서를 두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 이면서 동시에 신을 관조하는 것이 올바른 인식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신을 관조하는 것이 영원한 것을 찾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찾는 것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행복(eudaimonia)은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어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행복(happiness)은 심리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행복이 보다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좋은 삶'(the good lif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오늘날에는 주로 '웰빙'(well-being)으로 번역되어 사용하는 경향을 드러낸다(유재봉, 2013, 85; Ackrill, 1995: 198).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현 교육에서 행복 개념의 오용은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첫째, 학교교육이 지식교육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 개념을 사용하는 것처럼 비쳐진다. 이런 행복 개념은 지식의 일환으로 사용될 우려를 갖는다. 실제로 학교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교육)을 가르치기보다는 시험이라는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경우 얻어지는 결과로 행복을 둔다. 둘째, 행복 개념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 혹은 심리적이며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미로 드러난다. 셋째, 행복은 물질과 정신의 지속적 상태를 중시하는 경우이다(신정근·이기동, 2015: 40). 그러나 행복이 지속성을 내포한다고 해서 영원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의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행복 개념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행복의 근본적인 의미를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기독교)교육에서조차도 행복 개념을 올바르게 혹은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외적 감각 인식을 통해서 행복 개념이 주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행복은 불변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인간이 행복을 최고선으로 추구한다면, 그 행복은 영원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행복을 왜곡된 인식에서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올바른 인식이 온전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추구하려는

1) 이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해서 수정 보완 한 것이다.

2)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초빙교수

행복은 인식의 위계구조를 형성한다. 그 위계구조는 먼저, 외적 감각을 통해서 수용된 모든 정보들을 내적 감각으로 전달하고, 다음으로 내적 감각으로 전달받은 정보들은 이성으로 보내진다. 마지막으로 이성에서 인식된 정보들은 지성(sapientia)을 통해서 신을 관조하게 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외적 감각인식을 통해 얻어지는 행복의 의미를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외적 감각이 무엇이고, 외적 감각을 돕는 아니마의 의미와 외적 감각과 행복이 어떠한 관계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논의 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현 (기독교)교육에서 행복이 어떻게 이해되고 논의 되어야 하는 가에 대해 제시한다.

## II. 인식능력으로서 외적 감각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론』 1권에서 “삶의 유일한 땅에 이르게 되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으로 한정한다(Augustinus, 박주영 역, 2010: 5). 여기서 소수의 사람은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는 육체는 영혼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영혼에 대비해서 규정한다. 육체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고 외부 사물에 대해 반응하고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육체(신체)가 속하는 외적 감각의 의미와 외적 감각의 인식체계인 육적인 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외부 정보를 인식하는 외적 감각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을 신체(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한다(Augustinus, 박주영 역, 2010: 16). 신체는 외적 감각에 의해 인식된다면 영혼은 내적 감각에 의해 인식된다. 다시 내적 감각은 이성과 지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행복의 의미를 찾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체는 다섯 가지 감각(sense)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며, 영혼(soul)은 신체의 감각들로부터 전달 된 것을 이성을 통해서 인식된다. 그에 의하면 올바른 인식은 외적 감각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내적 감각을 통해서 이성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어떤 정보를 인식했다는 것은 이성을 통해서 얻어졌을 때 지식이 될 수 있다. 만약 외적 감각이 감각으로부터 수용된 정보들을 내적 감각을 통하지 않고 인식으로 전환했다면, 그 지식은 올바른 인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외적 감각은 받은 정보들을 직접 인식으로 전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적 감각을 통하지 않고 인식으로 전환될 수도 없다. 한 가지 엄두 할 점은 내적감각도 이성과 외적 감각을 매개하는 역할만 할 뿐 그 이상은 아니다(한병옥, 2015: 578). 외적 감각은 재료이고, 내적 감각은 재료를 담는 그릇이다. 그 그릇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숙하게 묻혀 있는 장독대와 같다. 외적 감각은 내적 감각의 재료(data)라면, 그릇이 되는 내적 감각은 ‘이성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Augustinus, 성염 역, 2005: 169-171).

그러나 외적 감각이 내적 감각보다 열등하거나 외부에 노출된 정보라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인간의 외적 감각은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다. 이러한 감각의 기능은 만지거나 보는 것과 외부사물을 지각하거나 외부세계와 접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엄밀하게 외적 감각은 오감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을 지식으로 산출하거나 수집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궁극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외부 감각은 정보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단지

외부 감각은 내면에 있는 내적 감각으로 정보를 송출하는 기능만 할 뿐이다. 왜냐하면 외적 감각은 열등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만약 외적 감각이 없다면 인간은 외부 세계에 대한 모든 감각과 경험한 것을 내부 세계에 전달될 수 없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외적 감각의 역할을 올바르게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양명수, 1999: 39).

앞에서 외적 감각은 그 자체만으로 지식(scientia)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지식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적 대상을 파악하는 인식능력이다. 외적 감각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은 외부세계에 머물게 되면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점이 바로 외적 감각이 갖는 한계일 수밖에 없다. 외적 감각은 온전한 인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내적 감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인간은 외적 감각활동을 통해서 그 내면에서 지식을 생산하도록 자극을 받는다. 그러므로 외적 감각만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외적 감각을 통해 얻어진 정보들은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지는 감각은 그 자체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없다. 외적 감각을 통해 수집된 감각들의 형태는 다른 형태의 속성이나 근원이 될 수 없다.

빛깔이나 형태나 그 밖의 속성이나 분량은 물체 안에 있다. 이런 물질적인 것은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 주체 밖으로 가지 못하며, 이 특수한 물체의 빛깔이나 형태는 다른 물체의 빛깔이나 형태일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은 자체 이외의 것도 사랑할 수 있다. 즉 자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다(Augustinus, 김종흡 역, 1994: 259).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외적 감각은 개별적인 기능으로서 역할보다는 영혼의 한 기관으로서 존재한다. 인간의 인식은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서 협력한다. 외적 감각은 대상을 보거나 느끼는 것이고, 내부로 전달된 인식은 내면에 자리한 이성을 통해서 지식이 된다(송병구, 2004: 86). 이처럼 외적 감각은 단독으로 외부대상을 판단할 수 없어서 이성을 거쳐야만 한다. 물론 신체의 감각이 신을 관조(visio Dei)하는데 불필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외적 감각이 하는 역할은 보다 더 우월한 것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외적 감각이 인간만의 고유 기능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공통적으로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sup>3)</sup> 외적 감각은 진정한 행복, 신을 관조하기 위한 예비적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외적 감각은 사물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외적 감각은 이성적 인식과 달리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외부 세계이다. 그래서 외적 감각은 신체의 감각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판단은 습관이나 강화된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어 간다(Nash, 2003: 42). 그러나 감각이 항상 올바

---

3)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는 외적 감각뿐만 아니라 내적 감각도 동물에게도 존재하는 것으로 여긴다(Augustinus, 성염 역, 2005: 169). 동물도 인간처럼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가 내부로 들어와서 차다 혹은 덥다, 눈이 부시다 혹은 아프다, 어둡다 등을 감지한다. 그리고 감지된 지식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성을 통하지 않는 지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적 감각과 내적 감각이 동물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은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이 감지한다는 것은 기능상으로 감지하는 것이지 알기 위해서가 아니다(Augustinus, 성염 역, 2005: 173). 단지 외부의 감각은 인간과 동물에게 존재하고, 내부의 감각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누지 않는다. 이성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인간과 동물의 감각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해해 되어야 한다.

른 경험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하다고 느꼈을지라도 다른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악을 들었지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같은 상황일지라도 날씨와 감정 등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경험에 의해서 학습되는 경험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신체의 감각이 경험에 의해 발생하는 지식을 절대적인 지식으로 간주하기에는 위험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외적 감각을 인식체계에서 분리하여 생각하기보다 인식 기관의 하나로서 간주한다. 이에 대해 그는 『삼위일체론』에서 각 부분(감각, 이성)은 정신(영혼)의 일부분으로서 정신은 모든 부분을 가졌기 때문에 전체로써 각 부분과 정신은 서로 관련된 것으로 설명한다(Augustinus, 김종흡 역, 1994: 260).<sup>4)</sup> 이러한 설명은 외적 감각이 정신의 일부분으로 이해되어서 그 자체만으로 온전한 인식을 추구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외적 감각은 인식의 과정에서 가장 하위의 단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감각과 관련해서 피아제(Piaget)는 인지발달에서 첫 단계로 감각운동기를 들고 있다. 이 단계는 영아들이 감각체계와 운동 활동을 사용하는 시기이다(정희영, 2008: 49). 이 단계에서 감각과 운동이 하는 역할은 복잡한 인지적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건강한 신체활동을 통해서 인지적 능력을 키우는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적 감각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구성요소이지만 주요한 인식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단지 감각은 지식과 모종의 관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양명수, 1999: 72).

신체의 감각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인식하거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온전할 수 없다. 외적 감각은 외부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기에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체의 감각들은 독립적인 관계에서 역할을 하므로 내적 감각으로 받아들여진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성으로 보내져야 행복을 인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송병구, 2004: 88).

## 2. 외적 감각인식으로서 육적인 봄(corporeal vision)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식대상의 하위단계에 외적 감각을 놓았다. 외적 감각은 외부세계에 노출된 정보들을 수집해서 내적 감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어서 외적 감각이 인식대상을 보는 ‘육적인 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인식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냥 ‘보는 것’(seeing)과 ‘관조’(theoria)하는 것으로 나눈다. 왜냐하면 외적 감각의 인식 대상은 오감을 통해서 대상 자체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모상(form)을 보기 때문이다(양명수, 1999: 42).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저서 『자유지론』, 『삼위일체론』에서 감각적 인식, 이성적 인식, 신 인식이라는 인식의 위계질서를 강조한다. 각 단계별로 인식체계는 육적인 봄, 사유의 봄, 지성의 봄이다. ‘사유의 봄’은 이성의 활동인 사유를 통해 감각을 인식하는 행위이다. ‘지성의 봄’은 내면에 있는 정신(mind)을 통해서 행복을 있게 하는 본질, 즉 신을 관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육적인 봄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육적인 봄은 신체의 오감을 통해서 제반물체들을 감지하는 것으로 규정된다(Augustinus, 성업 역, 2005: 165). 육적인 봄은 신체의 개별적인 감각들에 대해

---

4)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식의 과정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 하나의 과정으로 포괄한다. 이런 설명은 신플라톤주의의 유출설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모든 관계는 연관성을 갖고 있다. 가장 상위의 개념인 영혼은 하위의 개념인 외적 감각의 기능을 알고 있고, 하위의 개념인 외적 감각은 상위의 개념인 영혼에게로 향하고 있다(한병욱, 2015: 579).

보는 것이다. 마치 눈이 감지하는 것은 색깔이고, 귀가 감지하는 것은 소리인 것처럼 육적인 봄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둘째, 육적인 봄은 외적인 감각과 내적인 감각의 인식체계의 대상이다. 외적인 감각은 드러나는 대상을 보는 것이라면 내적인 감각은 드러나는 대상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 물체의 형태, 크고 작음, 네모와 동그라미,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은 보고 만져서 감지하는 것이 아니던가? 그러니까 고유하게 촉각에만 돌리거나 시각에만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편에 (돌릴 것이 아니던가?)

에보디우스: 알아듣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각각의 감각이 고유한 (대상이 되며) 그것들에 관해서 (각각의 감각이) 전달하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공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말이지?

에: 그렇게도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개개의 감각(각)에 해당하는 것과, 감각(sensum)들이 전체로서 또는 몇이서 공통으로 대상으로 삼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들 가운데 한 감각으로 (그러한 차이들) 구분할 수 있을까?

에: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떤 내적 감각으로 그런 구분이 이루어집니다(Augustinus, 성업 역, 2005: 167).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론은 대상을 '보는' 행위에 초점을 두면서 더 깊은 내면으로 이동한다. 예컨대 행복이 감각을 통해 얻어지는 쾌락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 그 이상의 행복을 영위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오는 행복은 오감에서 오는 만족으로 여겨질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보고 느끼는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면 여기에 익숙해져서 마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주시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바라보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의 감각으로 좋은 것을 좋다고 느끼는 것은 하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나 인간이 감각한 것을 마치 그 대상의 '실체(substance)'로 이해하게 되면 대상의 참된 실체를 볼 수 없게 된다. 만약 우리가 행복한 삶의 목적을 '쾌락' 그 자체에서 오는 만족에 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쾌락이 행복의 본질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해된다면 외적 감각이 가지는 역할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 감각이 대상을 본다는 것은 신체의 다섯 가지 감각에 한정 될 수밖에 없다.

육적인 봄을 통해서 보려는 것은 육체와 관련 있는 모든 것이다. 외적 인식의 대상이 추구하는 것은 보는 것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인식은 열등한 것과 우월한 것으로 구분될지라도, 그 관계는 연합된 것이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을 '육체를 이용하는 영혼' 이라고 정의한다(Gilson, 1954: 74). 이는 인간의 인식에서 열등한 것(inferior)과 우월한 것(superior)것으로 분리해서 육체보다 더 뛰어난 인식을 찾기 위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인간은 외적인(exterior) 것에서 내적인(interior) 것으로, 열등한 것에서 우월한 것으로 상승해갈 때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Gilson, 1954: 77). 이런 의미에서 육적인 봄은 대상 자체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모상을 보는 것이다. 감각은 드러나는 대상 자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육체의 감각을 통

해 본다는 것은 존재하는 것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럼 이제 신체의 감각이 포착하는 그 대상이 다음 셋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보라. 다시 말해서 눈의 감각 혹은 신체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우리 감각이 도달하는 그(대상을) 과연 어디에 놓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것이 그냥 존재만 하는 사물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살아 있는 사물에도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식하는 사물에도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에보디우스: 존재만 하는 사물에 해당합니다(In quod tantum est) (Augustinus, 성염 역, 2005: 177).

위의 대화에서 보듯이, 감각이 포착하는 것은 존재하는 사물 자체이다. 존재하는 사물 자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송(E. Gilson)은 존재를 하나의 존재와 존재 자체(being itself)로 구분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실체나 어떤 대상의 본질적인 것이라면 후자는 '있다'라는 의미로 무언가에 의해 실재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Gilson, 정은해 역, 1992: 20). 다시 말해서 존재는 대상의 원인이 되는 실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육체의 감각으로 보는 것은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있는(tantum est)' 대상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육적인 봄은 대상의 모상을 보는 것이지 대상 자체를 보는 것이다. 만약 육적인 봄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왜곡된 것이다. 따라서 육체적으로 대상을 보는 것은 현상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리고 감각은 지극히 단순한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물론 인간이 외적 감각을 통해서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서 외적 감각 혹은 쾌락을 통해 얻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감각의 차원에서 행복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원하며, 행복을 소유하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행복한 삶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유는 감각적인 단계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쾌락과 욕구를 충족시킬지라도 끊임없이 또 다른 욕구를 찾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감각적인 단계에서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면, 인간은 잘못된 인식에서 추구하는 행복을 영위하게 될 뿐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감각 인식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은 '실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재를 찾기 위한 단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행복'은 외부인식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추구하려는 진정한 행복은 결코 감각에 의해서 오지 않는다.

### III. 외적 감각 인식의 아니마와 한계

앞에서는 외적 감각은 내적 감각으로 이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외적 감각은 드러나는 대상을 보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외적 감각은 내적 감각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인식이 될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지의론』에서 외적 감각뿐만 아니라 내적 감각도 이성으로 파악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이성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 인식은 대상에 불과할 뿐이다. 이번 장에서는 외적 감각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으로서 아니마와 외적 감각이 갖는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외적 감각을 돕는 아니마(anima)

외적 감각은 외부환경에 의해서 유발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있는 대상을 보는 것으로 혹은 만져보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이 참된 대상인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사물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감각에 의해 인식되는 행복의 본질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외적인 대상으로 인식되는 행복은 본질로서가 아니라 단지 ‘있다(est)’ 라고 정의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인식이 외적인 것에 국한 된다면 참된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토대를 둔 행복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 체계는 외부 세계에서 내부 세계로 전이(轉移)였다. 이런 의도에 함축된 것은 인식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올바른 인식 과정을 상징하기 위함이다. 먼저 그는 인간과 동물에게 함께 존재하는 것과 오직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으로 구별한다.<sup>5)</sup> 전자의 것을 아니마(anima)라 부른다. 아니마는 ‘살아있는 영혼’ 혹은 ‘숨’ 등으로 번역되며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혼을 뜻한다. 이는 생명체에 생명을 주는 원리이며 인간과 동물은 감각을 통해서 기쁨과 슬픔을 인식할 수 있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69). 아니마는 아직 온전한 영혼이 아니다(Healey’s, 1957: 19). 단지 아니마는 몸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Nash, 2003: 63). 후자의 것은 영혼(soul/ratio)과 지성(intelligibilia(mens))을 의미한다.<sup>6)</sup> 두 단어의 의미는 육체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 저서인 『행복론』에서 육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아니마를 사용했지만 후기 저서인 『삼위일체론』에서는 아니마 대신 멘스(mens)를 사용했다. 아니마는 인간과 동물에게도 존재하는 것이라면, 멘스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아니마의 개념을 초기와 후기 저서에서 다르게 사용한 것은 육체를 부패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외적 감각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만으로 내면 깊숙하게 위치한 영혼을 관조할 수 없다.

내 속에는 육신과 영혼이 있는데 하나는 바깥에 있고 다른 하나는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을까요? 나는 지난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두루 헤매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써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Augustinus, 김평옥 역, 2012: 305-306).

아니마는 육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영혼이 아니다. 이것은 육체에 호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뿐이다. 그러므로 아니마는 육체의 역할을 돕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육체는 아니마를 통해서 감각 기능들이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지만 인식의 최종단계는 아니다. 아우구스티

5)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지론』에서 ‘존재함’과 ‘살아 있음’, ‘인식함’으로 구분하면서 둘은 존재, 짐승은 살아 있음, 인식함은 인간으로 규정한다. 그는 에보디우스와의 대화에서 인식에 관해 이야기 하면서 셋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 가장 월등한 것으로 언급한다. 이는 인간의 인식이 사물과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동물과의 차이를 밝히기 위함이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163)

6) 두 단어의 의미는 육체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 저서인 『행복론』에서 육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아니마(anima)를 사용했지만 후기 저서인 『삼위일체론』에서는 아니마 대신 멘스(mens)를 사용했다. 아니마는 인간과 동물에게도 존재하는 것이라면, 멘스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념을 초기와 후기 저서에 다르게 사용한 것은 역할의 상이한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누스는 아니마를 내면에서 육체가 호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규정한다. 단지 아니마는 원형이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2. 외적 감각 인식에 대한 오인

외적 감각은 아니마에 의해서 외부 감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아니마는 살아 있는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외적 감각은 외부 반응에 민감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대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점은 외적 감각이 갖는 특징이면서 동시에 한계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내면적인 인간은 그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새롭게 된다”고 언급한다(Matthew, 2002: 60). 이러한 언급은 내적 인식의 이성, 즉 회복된 이성(mens)에서 신을 인식하고 관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내적 인식은 이성(ratio)과 회복된 이성(mens)으로 구분된다. 이성은 지식을 산출하는 곳이라면, 회복된 이성은 ‘지성’, 즉 초월적인 신을 관조할 수 있다. 지성(intellection)은 정신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고유한 영혼의 기능이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신적인 빛에 의해 조명된다(Gilson, 김태규 역, 2011: 95).

우리는 신체의 감각으로 외부대상을 인식하지만 내적 인식은 정신(mens/mind)으로 안다. 우리 자신, 즉 우리의 마음은 감각되는 대상(object)이 아니라 정신적인(intelligible)존재이다.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물체들과 아주 친근하게 되었고 우리의 생각도 이 물체들을 향해서 외부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한 외부(물체) 계에서 생각을 돌이켜 정신의 훨씬 더 확실하고 안정된 지식으로 주의를 집중할 때에도, 우리의 생각은 다시 이 물체들에게 날아가며,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에서 안식을 구한다(Augustinus, 김종흡 역, 1994: 295).

인간은 감각이나 쾌락에서 오는 행복을 더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각적인 대상을 먼저 접하게 되고 복잡한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결국 행복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영위되기보다 현재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원하다. 이런 현상은 외적 감각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 인간 내면으로 관심을 돌려서 행복의 의미를 탐구한다.<sup>7)</sup>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론은 온전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왜곡된 인식의 한계를 지적한다. 인간의 인식은 신적 조명을 통해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성을 포함해서 모두 왜곡된 것이다. 특히 인간이 잘못

---

7)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감각을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보다 감각, 이성, 지성적 인식은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했다. 인식의 위계질서는 첫째, 외부 대상을 눈으로 본 후, 둘째, 감각기관(sense-organ)을 통해 지각이 이루어진 것을 이성으로 보내고, 셋째, 내면에서 마음(정신 혹은 영혼)의 주시(mental attention)로 지각하게 된다(Burnaby, 1953: 91). 인간이 사물(대상)을 느끼고 그 사물에 대해 보는 행위(형상)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은 정신(mind)을 통해서 가능하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정신은 중요한 개념이다. 정신은 내면에 존재하는 이성이면서 동시에 이성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인간의 이성은 하나이지만 이성과 정신 혹은 지성이라는 다른 두 기능을 가진다. 정신은 이성적인 영혼(mens)의 가장 높은 부분이다. 이것은 지성적인 것과 신에 관계하는 부분이다(Gilson, 김태규 역, 2011: 95).



된 판단을 하게 되는 원인은 감각과 사물의 보는 행위가 아니라 이성적 인식에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인식을 그릇되게 하는 것은 외적 감각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마음의 부패로 본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147). 자칫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 욕구만족 등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인간은 쾌락이나 지나친 욕구를 탐닉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행복을 영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행복의 잘못된 이해는 내면에 잠재해 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인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에서 얻어진 대상을 판단하는 자연 이성(ratio)에서 왜곡을 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어떤 것을 인식한다고 할 때 감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육체의 감각과 그것을 보는 행위 자체가 대상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생시킨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성'이 왜곡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로서 신으로부터 이성을 갖춘 영혼을 부여 받았다(Augustinus, 조호연·김종흡 역, 1998: 613). 그러나 인간은 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봄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은 결핍된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결핍의 상태를 아우구스티누스는 '타락'으로 설명한다(송병구, 2004: 64). 이렇게 타락된 인간의 인식 혹은 이성은 결핍된 상태여서 사물을 올바르게 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인간이 올바른 인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식적 오류를 이성적 인식에서 찾아야 한다.

앞에서 외적 감각은 불완전한 대상을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분명히 외적 감각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인식의 모체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외적 감각이 인식의 왜곡을 일으키는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자연이성, 즉 회복 전의 이성이라는 것을 간과해서 안 된다. 이점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식론을 통해서 검토하려는 것이다.

외적 감각은 이성에 비해 열등하고 인식 단계의 예비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에서 외적 감각은 그 역할과 기능이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식과 행복의 관계에서 이성을 외적 감각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잘못된 인식을 회복하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는 것 같다.

#### IV. 감각적 인식이 추구하는 행복(교육)

지금까지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 체계에서 외적 감각이 가지는 의미,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외적 감각은 인식의 예비적인 단계로 이해되어야 하고, 감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더불어 외적 감각은 감각적인 차원에서 인식을 왜곡하는 것이지 이성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은 내적 감각에 자리한 이성이라고 살펴보았다. 이장에서는 외적 감각을 통한 행복이 어떤 것이며, 행복(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 1. 외적 감각과 행복(교육)의 관계

행복에 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합리주의적 입장, 쾌락주의적 입장, 욕구만족 이론이다. 외적 인식으로서 감각은 쾌락과 욕구를 대상으로 삼는다면 내적 인식, 이성은 합리주의적 입장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감각적 인식보다 내면에 자리하는 이성

중에서도 더 우월한 이성(지성)을 통해 신을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것은 외적 감각에서 추구되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다.

외적 감각에 치우치게 되면 인간은 외부 환경이나 감각 기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우리의 신체는 배고플 때 신호를 받고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행복하다고 느낀다. 또는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신체의 안정감을 찾는다. 이처럼 우리의 외부 감각은 빠른 반응과 일시적인 현상을 주목한다. 우리는 외부 반응의 따라 행복이라고 단정하고, 외적 감각이 불쾌하게 느끼면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행복을 인식하는 과정이 외적 감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외적 감각의 가변성에 주목했고, 이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이 오인되는 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둔 것이다.

외적 감각의 가변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외적 감각은 내적 감각이 인식을 재구성하도록 돕는다. 만약 외적 감각이 우리에게 없다면, 인간은 '좋다', '슬프다' 등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 이러한 감정의 표현은 인간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외적 감각은 우리에게 필요한 감각기관이며, 행복한 삶에 도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식체계이다. 이런 점에서 외적 감각의 독특성이 무시되거나 인식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외적 감각들을 열등하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인간의 전인적인 측면에서 행복을 바라본다. 그는 외적 감각의 가변적인 특성을 직시하면서 내적 감각에 자리하는 이성의 왜곡도 동시에 강조한다. 이런 주장은 우리가 행복(교육)을 어떤 차원에서 행해야 하는가를 드러낸다.

우리의 인식과 행복의 관계는 밀접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저서 『행복론』에서 “육체는 영양을 보충하지 않으면 나약해지고, 영혼은 사물에 대한 통찰과 앎 이외의 것에 의해 양식을 얻지 않는” 것으로 본다(Augustinus, 박주영 역, 2010: 83).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식은 육체와 영혼(정신)을 통제하면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도록 한다.

그러므로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부족함도 겪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혜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지금 가능한 한 이성이 지혜를 설명하고 들추어 낼 것이다. 지혜는 정신이 지나치게 뻗어 나가지 않고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제한되어 있지 않도록 정신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정신의 척도이다.(Augustinus, 박주영 역, 2010: 63)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행복은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 부족함은 육체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가능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행복은 육체와 정신의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우구스티누스와 제자들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것은 영혼이 진정한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최종 목적지이다. 이점은 플라톤이 ‘이데아’(idea)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인 덕’(intellectual virtue)에서 행복을 찾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적 신앙에 근거해서 ‘이성의 왜곡’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행복론을 주장한다.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 고유의 이성이 소외된 것을 회복하기 위한 이성의 부흥 운동은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듯하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의 행복론은 궤변처럼 들릴 수 있다. 마치 진정한 행복이 신에게로 회귀하라는 포교활동처럼 말이다. 물론 그의 사상에는 아주 진하게 기독교 정신이 기초하고 있다.

이러 그의 주장은 역으로 외적 감각이 미치는 상당한 영향력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 외적 감각 인식은 우리에게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내적 감각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 외적 감각 인식이 지향하는 행복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행복(교육)이 외적 감각에 치우치는 경향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인식과 행복의 올바른 관계를 배울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외적 감각을 강조하는 행복(교육)은 욕구충족과 쾌락에 치우치는 경향을 드러낸다. 또한 외적 감각에 치우치는 행복(교육)은 감각적인 세계에 국한되거나 인식의 총체적 차원을 포함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하려는 인식과 행복의 관계는 영원한 것을 찾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 영원함은 불변하는 것이고 왜곡된 우리의 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시하는 행복(교육)은 인식과 행복의 관계적 측면에서 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외적 감각 인식과 행복이 주는 의미를 요약하면 <표1> 과 같다.

표1. 외적 감각 인식과 행복

감각대상	외부 세계	외부 세계는 불확실한 세계와 관련됨
앞의 체계	감각(sense)	감각은 느끼는 것에서 발생
인식의 체계	육적인 봄	육적인 봄은 대상의 모상을 보는 것
행복	쾌락, 욕구	보이는 세계에 국한 되는 행복

## 2. 외적 감각이 행복(교육)에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아우구스티누스의 감각적 인식에 근거해서 행복 개념이 무엇인가를 밝혔다. 궁극적으로 그의 인식론은 감각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에서 단절 되는 것이 아니라 신 인식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해 가야할 것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은 제대로 된 인식을 통해 불완전한 인식을 온전한 인식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행복에 대해 왜곡된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다면, 대안적인 인식으로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은 최근 행복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 정부는 학교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행복교육은 지식위주의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두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는 행복 교육은 명목에 불과할 뿐 올바른 지식 교육을 소홀히 하고 시대적 경향에 편승하거나 학생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천박한 개성교육으로 흐를 수 있다. 학생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과교육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이 학생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교육은 오히려 감각 인식에 토대를 둔 행복 교육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행복 교육은 단지 슬로건으로 존재하고 교실에서 실제로 하는 일은 여전히 왜곡된 지식교육을 하는 것이다. 지식 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보다 오히려 지식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유재봉, 2011, p. 132). 이런 측면에서 행복 교육은 잘못된 지식 교육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암기식이나 문제풀이 식의 지식교육으로는 학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이러한 지식 교육은 올바른 인식으로서 행복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 교육은 이성의 독특성과 한계성을 동시에 거론할 수 있어야 하고,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인식의 방법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교육으로 이끌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교육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왜곡된 지식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올바른 인식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진정한 행복은 신을 관조함으로써 가능하다. 신을 관조하는 것은 자연이성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 이성이 회복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론과 행복 교육은 기존에 논의되었던 행복의 의미를 재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행복 교육의 관점을 행복 개념에 비추어 재검토하도록 한다.

첫째,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교육은 균형 있는 삶을 위해서 전인적인 측면에서 교육에 반영할 수 있다. 자칫 특정한 영역에 국한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인간의 전인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적은 과거부터 현 시점까지 거론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현대 교육은 지식 중심의 교육이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행복' 개념을 쾌락이나 욕구충족과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개념은 인간의 인식과 이성에 대한 한계를 신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극복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둔다. 인간은 풍요롭고 잘 살고 싶은 욕구를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교육은 올바른 행복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행복 교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가르쳐야 한다. 행복 교육은 지적인 측면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을 탈피하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신을 관조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다. 인간이 신을 관조하기 위해서는 감각적 인식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성적 인식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이성적 인식은 신을 이해하는 차원이지만 직접 관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의 이성이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올바른 행복 교육은 쾌락 혹은 자연 이성에서 회복된 이성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 내면에 하나의 이성에서 두 기능을 하는 이성을 상정해서 이성적 인식과 신 인식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인식은 구분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은 이미 이성이 "결핍(egestas)되어서 어리석음(stultitia)"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성의 '결핍'에서 자유롭게 되면 행복하게 될 수 있다(Augustinus, 박주영 역, 2010: 46-47). 이처럼 교육은 인간의 이성을 결핍된 사고로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차원에서 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교육은 지식위주의 교육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한계를 깨닫고, 인식을 회복된 이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게 한다.

셋째,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교육은 교육에서 상실한 종교적 차원을 통합시킬 수 있다. 인간교육의 실패는 지식교육, 정서교육 혹은 도덕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 안에서 '종교적 차원의 상실'에 그 책임을 둔다(유재봉, 2011: 133). 이러한 지적은 현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 여실히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교육에서 종교적 차원의 교육은 종교 교리 혹은 삶의 방향이 정해진 교육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교수방법의 한계성과 거부감을 드러내는 양상을 드러냈다. 따라서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 예컨대 현대 교육은 종교적 차원의 세계관 교육이라는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종교(기독교)적 세

계관 교육은 인간의 근원을 찾고 인간의 이성이 어디에서부터 왜곡되었는가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세계를 볼 수 있는 사고의 안목을 키우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개념 안에는 교육과 기독교(종교)적 측면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교육적인 측면은 인간의 인식을 구분해서 어떻게 신 인식이 가능한가와 인간의 이성이 왜곡된 것을 회복된 이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독교(종교)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개념은 교육에서 상실한 ‘기독교(종교)적 차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V. 결론

다양한 학자들이 행복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행복 교육은 다소 감각적이거나 심리적인 측면에 머무는 경향이 있어 왔었다. 이러한 행복, 아우구스티누스의 감각적 인식에 의한 행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감각과 행복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을 분석하고, 감각 인식에 토대를 둔 행복 교육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아우구스티누스는 감각 인식에 대해 논의하였고, 인식과 행복 관점에서 감각 인식이 주는 문제에 논의하였으며, 인식과 행복 교육이 주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감각 인식은 인식의 연속적인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이지만 온전한 인식이 될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론에서 행복은 변하지 않는 ‘실재’를 찾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변하지 않는 실재는 감각적 인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내면의 인식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그에게 행복의 의미는 쾌락의 한계를 넘어서 이성의 한계까지 극복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외적인 인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은 인간에게 과연 육체의 감각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을 인식의 단계적인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데 특징을 둔다. 우선, 행복은 외적인 단계에서 현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적인 단계에서 재구성해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데 초점을 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잘못된 인식에서 올바른 인식으로 전환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과 행복 교육은 현 교육과 기독교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첫째, 행복 교육은 전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지식 중심을 지향하는 교육은 지나치게 이성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추구했다. 이러한 지식 교육은 잘못된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교육은 신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이성의 왜곡된 한계를 극복하는데 있다. 둘째, 행복 교육은 올바른 인식 교육의 장을 열 수 있다. 기독교교육은 인간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가르치기보다 인간의 ‘죄’성에 치우치는 교육을 했다. 이러한 교육은 넓은 안목에서 볼 수 없게 만든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교육은 왜곡된 이성의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은 잘못된 인식을 올바른 인식으로 회복하는데 있다. 셋째, 행복 교육은 총체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현 교육은 기독교(종교)교육을 교육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경향이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앞세워 우리 인식의 근간을 바꾸고 있다. 마치 인공지능이 모든 인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준다. 이것은 우리의 왜곡된 이성을 통해서 온전한 인식,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행

복(교육)은 외적 감각에 치우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과 왜곡된 이성을 총체적 차원에서 회복되도록 재고시킨다.

## 참 고 문 헌

- 김도일·장신근(2009). 기독교 영성교육. 서울: 동연
- 김종흡 역. (1994). 삼위일체론, Augustinus, A. L.(399-419). De Trinitate.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김태규 역. (2011).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이해, Gilson. E.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평옥 역. (2012).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론, Augustinus, A. L. De Vera Religione. 경기: 범우.
- 박주영 역. (2010). 행복론, Augustinus, A. L.(386). De Beata Vita. 경기: 누멘.
- 박혜용·심옥숙(2004). 철학 용어 용례사전. 서울: 돌기둥.
- 성염 역. (2005). 자유의지론, Augustinus, A. L.(388). Liber Secundus. 경북: 분도출판사.
- 성염 역. (2011). 참된 종교, Augustinus. A. L(390-391).
- 송병구(2004).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서울: 한들출판사.
- 신정근·이기동(2015). 공자, 인 세상을 구원할 따뜻한 사랑. 경기: 21세기북스.
- 양명수(1999). 어거스틴의 인식론. 서울: 한들출판사.
- 정은해 역. (1992). 존재란 무엇인가, Gilson. E. 서울: 서광사.
- 유재봉(2011). 교육의 종교적 차원과 그 정당화. 신앙과 학문, 16(2), 131-146.
- 정희영(2008). 피아제와 교육. 경기: 교육과학사.
- 한병옥(2015).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 감각'과 '기억, 의지'의 비교 연구'. 철학논총, 82(4), 575-598.
- Ackrill. J(1995). *Aristotle*. Routledge.
- Augustinus(1957). *De civitate Dei*, translated by Healey's. J. The City of God volII. London J. M. Dent & Sons LTD. (Original work published 413-426)
- Augustinus, trans. by Matthews.(2002), G, *On the Trinity Books 8-1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ugustinus, translated by Healey's. J. (1957).The City of God volII. London J. M. Dent & Sons LTD.
- Burnaby. J(1953). *Augustine later works*. MCMLV.
- Burnaby. J(1953). *Augustine later works*. MCMLV.
- Nash. R. H(2003). *The light of the mind*. Academic Renewal Press.